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9월 28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OMR카드에, 서술형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세요.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나?”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톨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제 몸뚱이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訴訟)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匠人),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 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

1. 위 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양반: 권세와 이익을 쫓지 않고 절개와 본분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② 부자: 선량하고 가식이 없으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끝내 양반이 되었다.

③ 양반의 처: 조선후기 사회적 변동에 민감한 여성으로 현실생활 능력을 중요시한다.

④ 군수: 지극히 위선적이고 간교하여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사고파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⑤ 양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 무능하지만 신분을 사고파는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실학사상을 문학 작품 속에 반영하였다.

② 독특한 해학과 풍자로 근대의식을 보여주었다.

③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모습을 풍자하였다.

④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평민 부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였다.

⑤ 신분제도가 흔들리던 당시 사회의 모순을 외면한 흥미위주의 전형적인 고전소설이다.

☞ 뒷면에 계속



[3, 서술형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래박의(東萊博義)”를 줄 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툭툭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맷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 내어, 모자에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 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고문진보(古文眞寶)”, “당시품회(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찌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킨 다음 수업을 쭈욱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되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종을 부르지 말고, 추위도 화로에 결불을 찌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進士)가 된다.

문과의 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이다.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밀이 희어지고, 설령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 이.’ 하므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鶴)을 기른다.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을 갈고,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네놈들 코에 잣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귀밀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3. (가)와 (나)에서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형식과 겉치레를 중요시함.  
(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힘.
- ② (가): 가정에서 매우 위엄이 있음.  
(나): 우유부단하고 다소 무능력함.
- ③ (가): 종들에게 마구 행패를 부림.  
(나): 체면과 체통만을 중요시함.
- ④ (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름.  
(나):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
- ⑤ (가): 신분을 이용하여 무위도식함.  
(나):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꾸미기를 좋아함.

<서술형1>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6점)

(1) 위 글에서 양반 매매 증서를 본 부자가 생각한 양반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3점)

(2) 부자가 ㉠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3점)

양반들이 \_\_\_\_\_ 때문이다.

<조건> (1) 한 단어로 쓸 것.

(2) 위 형식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 하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9월 28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이름:	
[4-6, 서술형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올시다. 이수(里數)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 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에는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車夫)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충충히 웃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데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뿔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세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나)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 “응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다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응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창이 검은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꼴! 이 눈꼴!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뻗뻗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p>(가)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땀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광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 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 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꾸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 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雨中)에 우장(雨裝)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덩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짐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뻘만 남은 얼굴에 유일한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깃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때에 김 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다, 젠장맞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멘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 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 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리다. “일 원 오십 전만 잡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 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안으로 어찌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일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p>		4. 위 소설 <운수좋은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① 인력거꾼 김침지의 하루 일과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② 대화 속에 비속어나 사투리를 삽입하여 하층 노동 계급의 삶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③ 식민지 치하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 하층 노동자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④ 소설 전반에 이루어진 행운이 급속하게 바뀌어 불행으로 반전하는 데서 이 작품의 비극적 주제가 강하게 부각된다. ⑤ 소설 도입부에 즐거움과 불안함이 교차하면서 우울한 분위기를 띠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제목에 걸맞게 운수 좋은 일들로 즐거워진다.			

☞ 뒷면에 계속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김첨지가 아내를 내심 사랑하고 있다.
- ②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김첨지와 아내와의 갈등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김첨지는 아픈 아내를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⑤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6.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 김첨지가 실제로는 이 행운을 즐기고 있다.
- ② ㉡: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 '비'는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상징적 배경이다.
- ④ ㉣: 아내의 죽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⑤ ㉣: 아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소재이다.

<서술형2> 위 글에 나타난 김첨지의 내적 갈등 상황을 쓰시오.(6점)

과(와)

심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조건> 위 형식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다. 부분점수 없음.

<서술형3> 위 소설의 제목 <운수좋은날>이 어떤 날인지 표면적, 실제적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사용된 표현 방식을 쓰시오 (7점)

(1) 표면적의미: \_\_\_\_\_ 날이다.(2점)

(2) 실제적의미: \_\_\_\_\_ 날이다.(2점)

(3) 표현방식: \_\_\_\_\_ (3점)

<조건> (1)(2)는 위 형식에 맞게 서술하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7, 서술형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 신이 예전에 꽃의 왕인 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왕을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빼짐없이 달려왔지요.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

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홀연히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이 하나가, 간들간들 걸어와 얇전하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홀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또 한 사내가, 배옷에 가죽띠를 매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밖의 한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빗발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생기는 것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사마(絲麻)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관괴(管劓)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는 만에 하나 결핍에 대비해야 한다 하였습지요.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꽃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붙들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사내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여쁜 여자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만? (3점)

- ①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② 꽃을 의인화하여 인간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다.
- ③ 대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④ 웃음을 통해 개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풍자의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서술형4> 위 글에 나타난 꽃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꽃이 각각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지 쓰시오.(6점)

(1) 모란: \_\_\_\_\_ (2점)

(2) 장미: \_\_\_\_\_ (2점)

(3) 할미꽃: \_\_\_\_\_ (2점)

<조건> 각각 그 특성이 잘 드러나게 쓰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9월 28일 1교시	출제자	김은경,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8~11, 서술형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와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있었노라.’ -----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텐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p>&lt;서술형5&gt; 화자의 심정을 고려할 때 ㉠에 내포된 의미를 쓰고 ㉠에 쓰인 표현법의 효과를 서술하시오.(6점)</p> <p>(1) 의미: _____ (3점)</p> <p>(2) 효과: _____ (3점)</p> <p>&lt;조건&gt; (1)(2)모두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lt;배점&gt;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p> <p>&lt;서술형6&gt; 다음은 (가)시의 특징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7점)</p> <p>(1) ( )의 규칙적 율격이 드러난다.(2점)</p> <p>(2) 유사한 문장구조 ( , )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3) ( )을 (를)형성한다.</p> <p>&lt;조건&gt; (2)는 반복되는 표현 두 개를 찾아 쓰시오. &lt;배점&gt;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다. (2)번은 3점, (3)번은 2점</p> <p>10. (나)시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4점)</p> <p>① ‘싸그락’ 같은 의태어, ‘난분분’ 같은 의성어를 사용했다.</p> <p>② ‘눈’을 사람처럼 도전하고 시련에 굴복한 존재로 표현했다.</p> <p>③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마음을 ‘햇숨’에 비유했다.</p> <p>④ 눈의 도전이 멈추지 않았음을 감탄문의 형식으로 표현했다.</p> <p>⑤ ‘꽃’을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p> <p>1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p> <p>① 역설법과 직유법이 사용되었다.</p> <p>② 인내와 헌신의 가치를 잘 나타낸다.</p> <p>③ 독자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p> <p>④ ‘상처’와 ‘아름답다’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p> <p>⑤ ‘상처’라는 단어를 통해 꽃을 피우는 과정이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p>			
		☞ 뒷면에 계속			



[12, 서술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초등학교 시절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3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학교 도서관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서 저녁 먹고 잠이 들기 전까지 말도 못 꺼내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께 혼날 각오를 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혼자서 고민하느라 얼마나 속을 끓였느냐고 하시며, 놀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저와 함께 학교로 가서 유리창 값을 배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보니 얼마 전 아버지를 따라 노인 복지관에 봉사 활동을 갔을 때 만났던 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회 복지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복지에 관한 책이나 영화도 꾸준히 찾아서 볼 생각입니다. ‘낙숫물이 뿔뿔을 뚫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큰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나 조종사가 되려 할 수도 있고,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농구 선수가 되려 하거나, 멋진 카레이서를 꿈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집이 가난하거나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국경을 넘어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니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농구를 하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 대신 다른 일을 꿈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 다시는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해야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꿈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매우 깊은 구렁 속에 갇힌 것과 비슷해서, 그곳을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렁 밖의 밝은 빛을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는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제가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렇게 힘든 상황과 싸우고 있다면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라운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꿈을 믿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꿈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꿈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꿈을 붙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가)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한 교훈이 잘 드러나 있다.
- ② (가)는 의미있는 경험을 통한 글쓴이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 있다.
- ③ (가)는 자신이 경험한 것 중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화나 사건을 제시했다.
- ④ (나)는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를 인용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
- ⑤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서술형7> (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6점)

(1) 글쓴이의 삶의 목표는?(3점)

\_\_\_\_\_

(2) 글쓴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계획은?(3점)

가. \_\_\_\_\_

나. \_\_\_\_\_

<조건> (1) 답안은 ‘글쓴이는 ~이(가) 되고 싶어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2) 답안은 두 개의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나) 정약용이 지인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 1: 아무개는 권세는 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니 분통이 터져.

정약용: 사람은 품평할 수 없으니 별로 술을 드립니다.

사람 2: 저 말은 짐도 지지 못하면서 먹이만 축내는구나!

정약용: (별주를 주면서) 짐승도 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3: 어떤 것도 품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약용: 하루 종일 품평하여도 화낼 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주변에 있는 바위를 사람들에게 실컷 자랑했다.

사람 4: 화낼 줄 모르니 바위는 마음대로 품평할 수 있단 말이요?

정약용: 저는 칭찬만 했지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는 산속에 살면서 바둑 두기와 통소 불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들으니 상공에서도 나와 같이 풍류를 즐기신다 하더군요. 상공의 솜씨를 한번 뵈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6학년도 9월 28일 1교시	출제자	김은정, 최은진, 김성희		
		반	번호:	이름:	

☞다음 장에 계속

상공은 대적할 사람을 찾지 못해 늘 아쉬워하던 터라, 박 처사의 말을 듣고 마치 신선을 만난 듯 가슴에 기쁨이 넘쳐흘렀다.

“신선과 인간의 길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찾아 주시니, 반가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숨씨로 어찌 신선과 바둑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신선의 통소 소리에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검손이 지나치십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공의 재주를 보여 주시지요.” - ‘박씨전’에서

(라)아버지 정완아, 소화도 시킬 점 산책하러 나갈까?  
정완 싫어요.  
아버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지 말고 바람 쐬고 오자.  
정완 됐어요. 피곤한데 무슨 산책이에요.

(마)혜리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같이 떠들어도 나만 걸려서 혼나고.  
인선 그야 당연하지.  
혜리 무슨 소리야?  
인선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어른들 표현대로 하자면 질그릇 깨지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도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혜리 뭐? 뭐 깨지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는 네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

**13. 위 글의 내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① (가)-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상대방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② (나)-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장정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자.

③ (다)-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직설적으로 말해야 한다.

④ (라)-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마)-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조언해야 한다.

[14, 서술형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지방 관직으로 나가는 김이소가 정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있다.

정조: 경은 이번에 지방 관직으로 나가면 잠깐의 휴가를 얻는 격이겠지만 내 마음은 매우 서운하오.

김이소: 이러한 때에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되어 몹시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조: 황해도와 평안도가 근래에 형편이 매우 나빠졌다고 하니, 경은 반드시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는 정사(政事)를 유념(留念)하여 시행하시오.

김이소: 신의 기량이 너무 모자라서 그동안 역임한 직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직책은 신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조: 황해도와 평안도는 본디 무사(武臣)가 많은 곳이라 일컬어지오. 그래서 이전부터 이따금 별군직(別軍職)에 등용된 자가 있었소. 경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두루 찾아서, 만일 합당한 자가 있으면 휘하에서 일을 시켜 보아 등용할 만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올려 보내는 것이 좋겠소.

김이소: 성상(聖上)의 하교(下敎)대로 하겠습니다.

정조: 이밖에 별도로 경에게 할 말은 없으니, 가서 편안히 지내도록 하오.

(나) 객 그대는 이미 급제하였소?

나 아닙니다. 과거 공부는 꽤 괴롭지요. 일찍이 향시(鄕試)에서 한 번, 지방에서 치르는 생원과 진사 시험에서 두 번 장원을 했습니다. 초시(初試)에서 세 번을 급제했으나, 복시(覆試)에서는 매번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향시는 쉽지만 한양에서 치르는 과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객 아! 그대의 재주로도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다니요!

나 내 진정 실력이 없어서이지요. 정말 글재주가 있다면 어찌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겠습니까?

객 허, 그렇지 않소. 과거 시험의 비리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지요. 권문세가의 자손은 갖 공부를 시작한 어린애라도 다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골 유생은 머리가 세도록 공부한 대가(大家)라도 오히려 시험에서 떨어지곤 했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백과 두보에 버금가는 글재주를 지녔으니, 대과(大科)라면 몰라도 어찌 소과(小科)에 합격하지 못하였겠소?

-----

<서술형8> (나) 글에 나타난 상황과 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쓰시오.(6점)

	상황	말을 사용하는 방식
(1)		
(2)		

<조건> 가. <상황>은 ‘~이(가) ~일 때’의 형식으로 쓰시오.

나. <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 조상들의 대화할 때 유의점’을 고려하여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배점> 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릴 경우: 1점 감점

다. (1)번, (2)번 각 3점

☞ 뒷면에 계속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3점)

- ① '정조'는 '김이소'를 완곡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② '정조'는 '김이소'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다.
- ③ '김이소'는 '정조'의 명령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④ '김이소'는 '정조'의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정조'는 '김이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독서> '오발탄'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 <보기>에서 철호가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유를 모두 고르면? (3점)

— < 보기 > —

- ㉠ 갈 곳을 잃고 방황하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 ㉡ 영호와 첨예한 가치관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 ㉢ 전후 비참한 생활로 치통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 ㉣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방향감을 잃은 존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 ㉤ 용기를 가지고 웅색한 양심의 울타리를 넘어서 비틀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 ① ㉠                      ② ㉠㉡                      ③ ㉠㉢㉣
- ④ ㉠㉢㉣㉤              ⑤ ㉠㉢㉣㉤㉥

16. 철호가 명숙의 나일론 양말의 뒤축에 계란만한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느낀 감정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양공주 노릇을 하는 여동생에게 한말을 느꼈다.
- ② 오랜만에 오빠로서 여동생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 ③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사는 여동생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④ 영호와 대조적으로 양심을 지키며 사는 명숙을 비웃었다.
- ⑤ 악착같이 돈을 벌어 올케의 병원비를 마련한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끝>-----

※ 선택형 16문항, 서술형8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16문항)	서술형(8문항)	
50	50	100



<객관식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3	9	2
2	5	10	3,5
3	1	11	1
4	5	12	4
5	2	13	4,5
6	3	14	4
7	1,5	15	2
8	3	16	2

<서술형정답>

문항 번호	정답	배점	채점기준/유사답
서1	(1) 도둑놈 (2) 양반들이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6	(2) 양반들의 부정부패한 내용을 쓰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
서2	(1)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과 아픈 아내를 걱정 하는 심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6	(1) 두 가지 갈등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
서3	(1) 운 좋게도 돈을 많이 번 날이다. (2) 아내가 죽은 가장 비극적인 날이다. (3) 반어법	7	(1) 돈을 많이 벌었다 (2) 아내가 죽었다 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
서4	(1)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을 몰라보는 임금(사람) (2)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간신) (3) 정직한자(충신)	6	
서5	(1) 과거에도 현재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한시도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2)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는 그리움의 정서가 강조 된다,	6	(1) 영원히 당신을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정답 인정.
서6	(1) 3음보 (2) ~면, 잊었노라 (3) 운율	7	
서7	(1) 글쓴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한다. (2) 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 나. '복지'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찾아본다.	6	
서8	(1) 상황: '객'이 나를 칭찬할 때 말을 사용하는 방식: 상대방의 재주를 진심으로 칭찬한다. (2) 상황: '나'가 '객'의 칭찬을 들었을 때 말을 사용하는 방식: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대응 한다.	6	(1) 진심으로 칭찬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정답인정 (2) 겸손, 겸양의 의미가 들어가면 정답인정.